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제191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가로열쇠〉

1. 손으로 쥐는 힘. 남자의 역센 000.
4.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 그에게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00이 있다.
5. 동쪽에 있는,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라는 뜻으로, 예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이르던 말.
6. 마찰에 의하여 불을 일으키는 물건. 작은 나뭇개비의 한쪽 끝에 황 따위의 연소성 물질을 입혀 만든다.
7. 한국 전근대사회의 최하층 신분인 천민. 사내종과 계집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9. 학교나 회사, 공장 따위의 건물 안에 있는 식당.
11.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따위를 직업으로 삼지 않고 취미로 즐기는 사람.
12.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14. 몸속에 있는 지방. 섭취한 영양분 중 잉여 영양분을 몸속에 축적해 놓은 에너지 저장고로서, 필요시 분해되어 에너지를 만든다.
15. 울려 퍼져 가던 소리가 산이나 절벽 같은 데에 부딪쳐 되 울려오는 소리.
16. 중국 양나라 주흥사가 지은 책. 사언 고시 250구로 모두 1,000자로 되어 있으며, 한문 학습의 입문서로 널리 쓰였다.
18. 조선의 제4대 왕. 집현전을 두어 학문을 장려했고,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19.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가 충만하여 떨쳐 일어남.
20. 예전에, 나라의 큰 난리가 있을 때, 신호로 울리는 불을 이르는 말.

〈세로열쇠〉

1. 손가락 끝에 붙어 있는 딱딱하고 얇은 조각. 손가락 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 어떤 지식 따위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남들이 주고받는 말을 곁에서 얻어들이 알게 되는 일. 그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000으로 한글을 깨쳤다.
3.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이라는 뜻으로, 잘 입고 잘 먹음을 이르는 말.
4. 사리사욕을 위하여 남의 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6. 예수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8.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
9. 글에서 쓰는 말투가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투.
10. 우단을 깎 대 위에서 상아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몇 개의 공을 큐 끝으로 쳐서 승부를 가리는 실내 오락.
13. 내야 할 것을 아직 내지 않았거나 내지 못한 사람.
15.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자 괴물. 그 얼굴을 본 사람은 돌이 되었다고 한다. 페르세우스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다.
16.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17. 연체동물로 머리에는 크고 잘 발달한 눈과 8개의 발이 있는데, 수컷의 세 번째 발은 생식의 역할을 한다. 깊이 100~200미터의 해저에 살고, 위험을 느끼면 먹물을 내뿜어 상대의 감각 기관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18.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낱말퍼즐을 만들어 푸른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 보내실곳: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11번지 (감삼동 68-4) 4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pr5726000@naver.com

→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 정답자 발표: 1,339호



1,189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 당첨상품은 우송해 드립니다.



**네이처파크**  
Trees & Water touching your heart.  
이용권 2매 ☎1688-8511

- |                |                |
|----------------|----------------|
| 이유미(달서구 선원로)   | 임호영(달성군 다사읍)   |
| 서정민(달서구 장산로)   | 박경순(달서구 용산서로)  |
| 이지은(달서구 달구벌대로) | 김명일(달서구 달구벌대로) |

〈1,189회 정답〉

인	발	꿈	치	김	치
상	형	문	자	맛	홍
투		취	자	아	도
잡	생	각	벼	락	생
이	시	슬	호	접	몽
이	탈	리아	패	사	
트		차	외	법	권
나	날	이	상	태	
중	사	춘	기	인	기
					척

♣ 가족과 함께 풀어 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화)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푸른신문**

대표전화: (053) 572-6000 팩스: (053) 572-6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감삼동 3F)  
www.prsinmun.co.kr (우편번호: 42640)

- ▶ 등록일: 2000년 10월 17일
- ▶ 등록번호: 대구다 01130
- ▶ 간행: 주간
- ▶ 인쇄처: 미디어프린팅넷(株)
- ▶ 발행인: 김현두
- ▶ 편집인: 김현두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prsinmun.co.kr

## 푸른신문 구독신청 방법

- 구독료 : 1년 15,000원
- 입금계좌 : SC제일은행 556-20-270245 예금주:푸른신문(김현두)
- 전화 : (053) 572-6000 팩스 : (053) 572-6006

달서구 · 달성군 지역신문 '푸른신문'은 지역밀착형, 주민밀착형 지역신문으로서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중앙지나 지방 일간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의 훈훈하고 작은 이야기들 까지도 읽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건전한 비판을 통해 지역문화를 창달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